



# 한인회보

##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VOL. 3 NO. 2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RCH 1976

### 삼일절 기념행사

이런 57주년 삼일절을 맞아 한인회에서는 와싱턴주 학생회와 협동으로 3월 1일 저녁 7시 30분 U.W. 음악 대학 대강당에서 기념행사를 가졌다.

행사는 한인회 총무(신부희) 사회로서 이창희 선생님의 기념 행사로 부터 시작되었다. 기념사를, 삼일절에 나타난 우리 민족의 숭고하고 존엄한 독립정신은 길이길이 가슴속에 간직하여야 한다는 말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삼일절의 의미를 회고해보는 엄숙한 자리가 될 수 있었다.

이어서 (김경아, 조영)씨의 삼일절 노래와, 독립선언문 대성으로 노산 이은영씨의 「불길처럼, 물결처럼」이라는 애국시 낭독(김정복)으로 1부 행사는 마쳤다.

그후 행사로서 학생회에서 마련한 음악회가 학생회장(박건홍) 사회로 열렸는데 출연한 여러 연주자들의 놀라운 솜씨에 청중들은 박수를 그칠 줄 몰랐고 특히 오랜만에 들어보는 가곡들은 다시 한번 「우리」를 느낄 수 있게 하며 여러번이고 재림이 러려 나왔다.

음악회를 마치고 학생회가 준비한 다과회에선 여러 선 후배, 친지들과의 정겨운 환담과 샅샅이 회포를 푸는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모두 하나같이 기쁜 얼굴로 행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다.

### 한병기 유엔대사 씨아들 방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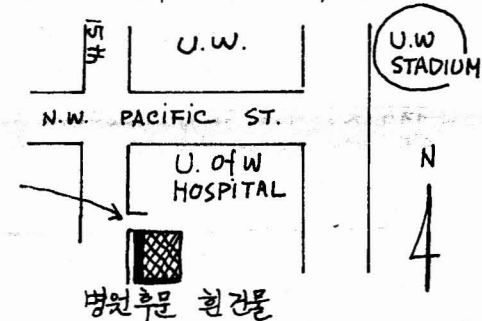
한병기 유엔대사께서 3월 23일 24일 양일간에 걸쳐 보조관 이기경씨, 수행원 신동원 상항 총영사를 대동하고 씨아들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한국정부측과 교민간에 솔직한 대화의 기회를 마련하여 상호간에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결드려 교민의 모습을 담은 영화 상연도 갖길 예정이라 한다. 자세한 공식 일정은 아래와 같이 많은 교민께서 참석하시며 여러가지 문제에 대한 질문과 한대사의 답변을 듣기 바란다

시일: 1976년 3월 24일 저녁 8시

장소: U.W. SOUTH CAMPUS #316

약도 참조

내용: 강연 및 질문 영화 상연 (혈육의 정)



병원후문 흰건물

### KOTRA에서 상품 전시회 개최

오는 4월 27일 부터 29일까지 3일간 오전 9시 30분 부터 오후 5시 까지 시내 Hilton Hotel (Windward Room)에서 한국 가정용품 및 공예품 전시회가 씨아들 KOTRA(대한 무역진흥공사) 주최로 개최된다.

이 전시회를 위하여 서울에서 7,8명이 상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전시하게 되며, 전시기간중 수출상담도 겸하여 가질 예정이라 한다. 이번 전시회가 끝난후 로스앤젤레스와 달라스에서 5월에 각각 또 개최 될것이라 하며 관심있는 교포나 업체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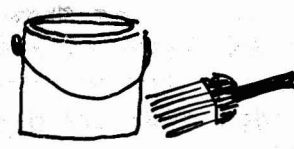
이에 대한 문의는 전화 623-3558 무역관으로 하기 바란다.

### 라코아 부인회

회장 Mrs. 송자 White께서 부근의 전근으로 인하여 부득히 회장직을 사임하고 부회장 Mrs. 리아 암스트롱이 회장직을 맡아 일하게 되었다.

라코아 부인회는 오는 3월 26일 오후 9시 30분 Channel #13 텔레비전을 통해 대표자 3명(회장 암스트롱외 2인)이 강연회를 갖는다.

내용은 근인가족으로 미국에 와서의 여러가지 어려운 실정을 토의하는 것이라 한다.



「벽에 일거리가 있습니까? 한인회에 연락주세요!」

한인회는 재정난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계획으로 끝나게 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임원들이 교포 가정 내의 일을 돕고, 그에 대한 기부금을 한인회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용하려 하니 Painting 또는 이삿짐 포장과 운반, 전기, 수도수리의 목공임과 정원일등 가리지 않고 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한인들의 기쁨으로 좋은 재물에 산 값에 봉사하며, 지불하시는 기부금은 연말 면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니, 만 사함을 부르지 기린 면리, 한인회에(낮 523-7057, 저녁 784-4492) 일차 문의 하심을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의 전화는 앞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큰 힘이 될것을 확신합니다.



### KINGDOME 실내 체육관 개장식에 한국 무용단 참가

3월 27일 오후 7시 30분부터 개최될 KINGDOME STADIUM 개장 경축 행사에는 미국 독립 200주년 기념행사를 겸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KING COUNTY 개장 준비 위원회 주관으로 준비되고 있다.

이 위원회에서는 각국 민족들이 출연하게 될 "The Golden Door" 프로그램에 한국 고전 무용단을 출연 시켜줄 것을 한인회에 요청하여 응에 따라 한인회에서는 예술인 협회의 협조로 백인희씨를 중심으로 10여명의 무용가들이 매주 토요일 마다 출연을 앞두고 땀 연습중에 있다.

KINGDOME 실내 체육관에서는 앞으로 농구, 축구, Football 외에 상품전시장으로도 사용하게 될것이라 하며 경기장 넓이는 150,000 Squar feet에 65,000 명을 수용하는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실내 경기장이라 한다.

이 체육관의 개장을 경축하기 위하여, 1,800 여명의 협찬대와 비록해공관등 여러가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이 역사적인 기념행사에 많은 한인교포들의 참여를 바라고 있다.

입장료는 #2, #3이라 하며 미리 입장권을 구입하실 분은 전화 447-7273으로 문의.

### 무료 영화 상영!!

제목: 혈육의 정

때: 1976.3.24  
저녁 8시

곳: U of W  
SOUTH CAMPUS  
#316

# 「씨애틀 한인회사 제 7기」

한 만섭

제가 가족을 데리고 씨애틀을 찾아온 때는 1968년 여름, 그러니까 한인회가 발족한지 첫 돌이 채 되지 않았었다. 한인사회와의 첫 접촉은 그 해 링크업에서 있었던 8.15 피크닉에서였다. 그 날은 끔찍하게도 비가 마구 쏟아져 내렸는데 그 비속에서도 땀을 뻘뻘 흘리며 갈비찜을 열심히 구워 제하는 허름한 작업복의 나이 들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턱 인상적이었다. 종이컵에 갈비를 받아주고 비를 피해 처마 밑에 뻗은 테이블로 그 맛 좋은 갈비로 저의 시냇물을 면한 후 그 갈비찜 한 아주머니가 누구였는지 알고 보니 바로 당시 회장이시던 이창희 선생님의 사모님이었다. 씨애틀에 오기전에 캘리포니아의 짧은 한인사회와 지내오던 제가 씨애틀에 와서 이 같이 어른께서 손수 수고하신 음식으로 대접을 받으니 감동과 감사에 온 것 같았고 씨애틀 한인회의 첫 인상은 매우 '한국적 아주나' 하는 것이었다.

그 후 두서너해 한인사회와 접촉하느라 한인회 부회장, 재무의 감투도 쓰게 되었고 1973년에는 드디어 회장이란 '중대' 맡게 되었다. 1970년 이후 나날이 들어가는 교포인구, 더욱이 '새' 세대의 교포인구가 점점 늘었다. 회장직을 하는 동안 우리 한인회에도 '일시성' (Transient Period) 가 올 것을 예감했고 한인회도 매우 성장했으므로 '장기 보살' 때도 됐다고 생각했다.

우선 이 일은 미리 준비해야겠다는 마음에서 당시 한인회 회칙은 보강으로 작성했다. 당시의 회칙이란 두 페이지에 오지만 십여조 적혀있는 '귀중한' 문서였다. 우선 회칙 수립 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 회의와 임시총회까지 약 4개월을 소비해서 새 회칙을 완성했다. 새 회칙의 중요 골자는 '선거법'에 관한 '개혁'을 명백히 해 '부정한' '집어' 이만하면 모든 교포가 만족하리라 자부했고 또 그 당시 한인회선거를 비평하던 분들도 다 같이 만족하리라 믿었다. 또 '세대교과'가 있더라도 이 새 회칙에 의해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했다.

이 새 회칙은 그것을 만든 해엔 원만히 쓰여졌다. 새로 선출된 임원들은 집기적으로 회보를 발행하는 등 한인회 활동을 더욱 제도에 올려놓았다. 불행히도 그 회칙은 그 다음 두번이나 원만히 쓰여지지 못했다.

우리 한국 민족은 해외에 나가 어느 지방에 모여살면 헌법에나 있듯이 '한인회'라는 것을 조직하고 또 한인회 단 하나가 있도록 노력한다. 저의 생각으로는 한인회를 조직하는 '관습'은 밀집대의 국가가 없고 보니 교육광복을 위해 회를 조직하던 것과 단결을 해야 교육광복사업에 능률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회가 있어야 한다고 믿어 왔던 것 같다. 이런 염향이 있어서인지 몰라도 지금도 한인회에 대한 개념도 교포마다 다르다. 아래에 보편적 개념부터 극단적 개념까지 적어 보기도 한다.

1. 교포 상호간의 친목 (사회적 개념)
  2. 교포 상호 부조 (경제적 개념)
  3. 한국 문화 예술 소개 (문화 선전적 개념)
  4. 교포 개인 또는 사회 문제 상담 (법률적 개념)
  5. 한국 영사관 산하기관 (행정적 개념)
  6. 교포의 비행 처단 (사법적 개념)
  7. 애국 애족 (정치적 개념)
  8. 미국 땅에 한국 교두보 형성 (전략적 개념)
- 여러 독자께서는 어디 그런 개념을 가진 사람이 있겠는가고 의심하는 분도 있겠지만 실은 그런 분도 가끔 있었

다. 이러한 다양한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인회에 대해 야심을 갖고 감투 투쟁을 하는 사람, 때로는 개인의 기대에 어긋나서 한인회에 대해 실망하는 교포도 있다. 위에 상기한 1, 2, 3, 4 개념은 한인회 회칙에도 명시되었으나 그 이하의 개념은 교포가 마음대로 갖는 개념들이다.

씨애틀 한인회는 교포 상호간의 친목을 위해 8.15 피크닉과 아리랑 밤을 해마다盛大히 가려왔고 상당수 수의 교포가 이에 참가한다. 1975년부터 교포 상호 부조를 위해 경모회를 열었다. 한인회의 사업목적은 날로 실현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교포들께서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한인회의 임원 (회장, 이사장 등)은 남을 위해 자기의 시간과 돈을 쓰는 자원자 (Volunteer)의 일이다. 따라서 임원들의 사업범위에는 한계가 있다.

한인회는 위에 적은 모든 목적을 충족하기에는 너무 막대한 일이다. 상기한 각각의 개념과 목적을 위해 독립된 기관이 생겨는 것도 좋은 일로 생각된다. 예를 들면 교포 상담 문제 상담소, 직강 안내 연구회, 정치적 개념이 깊은 교포들은 한국 정치 Club 등을 형성하는 것이 좋겠다. 한인회는 이런 여러 단체와 밀접 연락과 유대 강화에 노력하는 임무를 더 강조하는 것도 좋은 것이다. 흔히 한국 사람은 모이면 말이 많고 싸운다는 이야기를 한다. 단결을 하려니까 마찰이 생기는 것은 사실이다. 차라리 분산하여 잘 살도록 하고, 때로는 김칫말을 하는 사람 (민족)끼리 한데 모여 화목하게 김칫말을 같이 감상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한인회'의 증대된 임무의 하나로 삼는 것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줄 안다.

## ▶ 봉사부 생활 안내란

한인회 봉사부에서는 사업의 하나로 「생활 안내란」을 만들어서 교민 여러분에게서 갖고 계신 미국 생활에 대한 의문점을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언어의 장애로 인해서 인권의 피해를 받는 경우라든지 새로 이민 오셔서 익숙치 못한 아이들 학교 문제, 의료문제를 미국 생활에 대한 의무가 있을 때 세심히 마시고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께로부터 문의해 온 문제 중에 교민 여러분께 알려 드려서 도움이 될만한 사항을 「생활 안내란」에 실려서 한인 회원들에게 혜택이 되기를 바랍니다.

## ▶ 이민국 문제 상담

봉사부에서는 교민 여러분에게 이민국 문제를 상담해 드립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혹은 언어의 장애로 인해서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직접 문의하시기 어려운 경우에 전화로 연락해 주시면 대신 알아 보아서 성심껏 알려 드리겠습니다.

## ▶ 씨애틀 시에 속한 의료관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

건강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양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건강보험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어떤 보험은 보험 든 사람이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거나 수술을 받을 경우에만 그 비용의 전체 혹은 부분을 물어 주고 어린 아이들의 정기적인 의사 방문 또는 예방 주사에 대한 의료비는 물어 주지 않는다.

또한 보험이 없이 개인 의사에게 가면 의료비가 상당히 비싸다. 이번 달에는 여기 씨애틀 시에 속한 의료관에 책임자로 계시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여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지 알아 보았다.

- 1) 예방 주사: 가장 수입에 관계없이 예방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주사는 출생 후 3개월 부터 시작되어 갈때마다 다음 번에 언제쯤 와야 할지 알려준다. 미리 예약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 2) Rainier Valley에 사는 사람은 선혈하면 진단, 치료, 그리고 치과 치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 3) Central Area (중부지역)에 사는 사람은 Adessa Brown Clinic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무료 혹은 낮은 비용으로 받을 수 있다.
- 4) 이 외에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저수입 가림은 시에 속한 건강과 또는 Children's Orthopedic Hospital Clinic을 통해서 진단과 치료를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 5) 가족 계획에 대한 의사의 안내와 가족 계획을 위한 약과 기구들을 가족 수입에 따라서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 6) 저수입 가림에 한해서 임신 중 의사비, 분만비, 병원비, 그리고 갓난 아기의 소아과 비를 무료 혹은 낮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다.
- 7) 저수입 가림에 한해서 3살 아래의 어린이에게 게 우유와 음식을 무료로 공급 받을 수 있다.
- 8) 성병에 대한 치료를 수입에 관계없이 무료로 시 건강과와 Harborview Hospital Clinic 받을 수 있다.
- 9) 결핵 검사와 진단을 가정 수입에 관계없이 받을 수 있다.

주 의 령: 씨애틀 지역에 7개의 시에 속한 건강과가 있는데 그 주소는 전화번호 책 하얀 면에 669 페이지의 셋째란의 마지막에 적혀 있다. 가정 수입의 구분은 1년 수입과 가족수로 결정된다 한다.

## ▶ 도움이 필요하십니까

최근 이민 온 자로서 한인회에 관하여 알고 싶거나 귀국 안내나 이민국 관계 미국 생활에 관한 질문 또는 협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봉사부장 헨리.장 (전화 523-7057)에게 문의하시면 성의껏 알아 연락 드리겠다 하오니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코마 지역에 거주하는 교민들 가운데 도움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한인회 관계자에게 연락하시어 협조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 병용 - 전화 927-2277  
838-2010
- 이 원구 - 588-7561
- 남희.노우스 - 588-3697
- 리아.안스트롬 - 531-3742

## < 읽고 모집 >

본 회보에 실릴 기사 (수필, 기행문, 논설, 시), 또는 한인회의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리고 있어오니 아래 주소로 많이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P.O. Box 4093  
Seattle, Washington 98104  
한인회보는 매월 발간되고 있습니다.

# 교회소식



○ 시아틀 한인 형제교회 (담임 최몽길 목사)에서 3월17일(수) 부터 20일(토)까지 4일간 이천석 목사를 초빙하여 대 부흥집회를 갖는다.  
 부흥집회시간: 새벽 9전 5시  
 저녁 오후 7시30  
 교회 주소: 7th & SPRING ST. SEATTLE, WASH  
 전화연락: 367-0183

○ 부활절 합동예배 - 시아틀과 타코마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한인 교회 목사들로서 구성되어 있는 교역자 협회 (회장 BEN 송선교사)에서는 오는 4월18일 (일요일) 부활절을 기하여 시아틀과 타코마 지역의 각 한인교회가 한자리에 모여 합동으로 새벽 6시에 시아틀 시내 중심가에 있는 형제교회 교회 광장 (First Presb. Church - 7th Ave. and Spring St.)에서 갖게 되는데 교무여러분은 물론 한인 들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한다.

○ 시아틀 제일교회 (담임 김혜성 목사)는 서울에서 부흥회 담당자 한국을 방문중

○ 타코마 중앙교회 (담임 정남식 목사)에서 감사 이천석 목사를 초청하여 부흥전도회를 갖는다  
 부흥회 일정: 3월 21일 (일요일)  
 11시30분부터 시작  
 저녁 7시30  
 새벽 예배 5시  
 24일 (수요일) 까지



집 없으면 집을 사시고  
 집 있으면 집을 파세요



Pioneer Realty  
 5505 UNIVERSITY WAY N. E.  
 SEATTLE, WA 98105

# 김 현 중 부동산 에서

(FRANK) HYUN CHOONG KIM

- \* 무료봉사: 값싼 이자를 알선 해드리고,
- \* 무료상담: 정확한 감정을 해드립니다

- \* 취급종류: 주택, 아파트, 호텔, 토지,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 0112

## 부동산

주택,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9455-35th SW, Seattle, Washington 98126

진 김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Res. (206) 932-3595



## 헨리 장 여행사

- 초청 이민 수속안내
- 외국 방문 특별할인 (매주)
- 항공표 월부판매
- 이민권 문제 무료상담

NORTHWEST: 대한항공, JAPAN AIRLINE

1370 Stewart Street / Suite 201, Seattle, WA. 98109

Bus: (206) 623-2975

Res: (206) 523-7057 (24 hrs.)

Henry Chang Travel Service

## 필신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알맞는 주택알선
- 토지 및 부동산 안내
- 아파트 건물 구입 소개
- 기타 상업안내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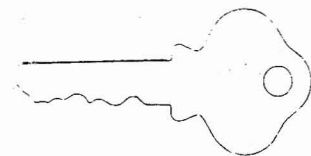
신 호범

PAULL HO BOM SHIN  
 Sales Representative

PHONE

Bus. 365-6363  
 Res. 778-1972

11514 - 15th Avenue N.E.  
 Seattle Washington 98125



## BOOIL ARTS

- 동양화
- 그림액자
- 골동가구

IN PIONEER SQUARE AREA  
 83-B S. Washington St., Seattle, Wa 98104

CALL 624 - 8930

## 음악소리 (The Sound of Music)

오 정숙

방금 텔레비전으로 음악 영화 "The Sound of Music" 을 보았다. 이 영화의 이야기는 실지로 있었던 오스트리아 의 해군 대위 Mr. Von Trapp 가족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세계 제2차 대전 바로 직전에 독일의 나치 정부가 중부 유럽을 점령하면서 그 중에 한 나라인 오스트리아의 군대를 지배할 즈음에 있었던 이야기이다. 영화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후에 Von Trapp 가족은 스위스를 거쳐서 캐나다에도 다녀 갔다고 한다.

오늘 저녁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지금부터 10년 전 의 기억을 떠올려 보게 된다. 1966년 7월에 내가 미국에 도착한 지 몇 일 안되어 여기 다운타운에 어느극장에서 방금 개봉했다는 영화를 아버지와 같이 보았기 때문이다. 지금 나의 느낌은 그 전에 같은 영화를 보고 느낀 감흥과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된다. 처음 이 영화를 보았을 때 영어가 익숙하지 못했으므로 내용을 완전히 소화시키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을 줄 안다. 그러나 그 보다 내가 10년이라는 세월을 더 살아왔고 또한 인생을 보는 눈이 그 만큼 달라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 기도 한다.

음악을 좋아하는 고모 요즘도 가끔 레코드로 주제를 감상하는데 노래를 들을 때 마다 사진을 연상해 보고 인상 깊은 음악 영화였다고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 저녁에 다시 보면서 느낀것은 영화에 나오는 음악이 참으로 훌륭하지만 영화의 내용에서 얻은 바가 많다고 생각된다. 네 어린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나인고로 영화의 여주인공인 마리아와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 어머니를 여인후 아버지의 군대적인 엄한 교육 아래서 자라고 있는 일곱 어린아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전 어머니와 다름없이 풍족하게 나눌수 있는 마리아의 아름다운 심정을 동경하게 된다.

그가 일생을 통해서 남편과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음악적인 행복스럽고 즐거운 생활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 면서도 한편 그가 드러야 할 노력과 인내와 또한

견디어야 할 어려움도 같이 그려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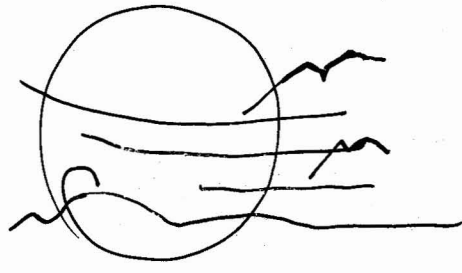
여자들이 다섯과 사내 아이들이 합하여 노래하는 명랑한 모습이 지금도 눈 앞에 어른 거린다. 어린이들의 세계는 천진난만하며서 행복스럽지만 그들은 애립에 대해 예민하며서 환경에 따라서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 점이 결여 될 때 그들은 불행해 진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부부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위할리라도 애립이 표시되어야 하여 어린이들의 개성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다.

수녀로서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을 위하여 바치기로 각결 한 마리아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되고 또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격게되는 종교적 고종의 척도는 보통 사람이 짐작하기 어려운 것이라라고 생각된다. 마리아가 수녀원으로 되돌아 왔을 때 그를 강득하고 교육해야 할 위치에 있는 수녀원 원장이 오히려 마리아를 위로 하고 격려하는 선양에 숙련된 모습에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마리아가 천주교의 모든 예식을 따라서 교회의 축복을 받으며 결혼식을 올렸고 또한 끝까지 아내와 어머니로서 심정을 하리라고 그의 마음 한 구석에 갈 재해 있을 종교적인 배반의식과 폐배감에서 부터 완전히 해방될 수 있을런지 생각해 보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귀족 생활을 보여주는 이 영화에서 Mr. Von Trapp이 독일 군대에 소속되기를 거부하면서 자유를 찾아서 나라와 재산을 뒤에 두고 스위스로 이민하는 모습에서 세계 제 2차 대전의 한 장면을 볼수 있었다. 수녀원에 들어갔던 마리아와 그 가족을 찾아낸 오스트리아의 젊은 군인이 즉시 사실을 상관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과로워하는 태도를 보면서 군인으로서의 의무감과 민족적 양심 사이의 갈등을 느낄수 있었다.

Mr. Von Trapp과 그 가족이 무사하게 도피하는 것으로 영화는 끝이 되었지만 그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을 담할 아이들의 상흔과 수녀원 원장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파

온다. 어려운 일도 목적이 있을때 두렵지 않다는 것을 오늘 저녁에 "The sound of music"을 보면서 느끼게 되었다.



## 한글 학교 안내

급증하는 교포아동들이 미국생활속에서 우리말을 잃게 되고 또 이곳에서 출생된 아동들은 한국에 대하여 배울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모던 박진자 여사는 1973년 몇몇 부모의 동의를 얻고 교포 자녀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기 시작하였던것이 지금은 등록학생 40여명에 교사가 3명으로 그 규모가 방대 하여져 가고 있다.

처음에는 전혀 한글을 읽지도 못한 어린이들이 지금은 읽고 작문까지 짓게 되고 보니 정에 언어불통으로 가정 내에서 빛어지던 많은 어려움이 무너지게 되고 우선 한가지 말로 사용하니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 다고 부형들은 말하고 있다.

박진자 여사는 현재 미국 불구 아동교육을 맡아 보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남산국민학교에서 가르쳤던 분으로서 아동지도에 특별한 권위가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다. 오는 4월 3일 부터 봄 학기가 개강되는데 희망하시는 부형께서는 하기장소로 연락하시기 바라고 있다.

연락처 : 전화 367-0183

수업장소 : Ethnic Cultural Center

3931 Brooklyn Ave. N.E.  
Seattle, Wn. 98105

수업시간 :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2시 40분 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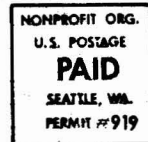
수업과정 : 고급반 - 회화, 읽기, 글짓기, 문법, 한국역사

중급반 - 읽기, 쓰기, 기초회화

초급반 - 발음익히기, 한국동요, 한글공부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 Seattle, Wash. 98104



Dr. Han, Man Sep

12904 45th Lane

Bellevue, Wa 98006



# 아리랑 바

새로운 밴드가 흥겨운 음악을 선사합니다!

Open 7:00 AM to 2:00 AM  
Sunday 12:00 to 12:00

728 Pine Street • Seattle, Washington 98101 . 345-9740

Res. 329-1896

대표 남 성 심

- 최저요금, 친절봉사
- 이민수속 무료봉사
- 국내외 항공표 판매
- 매주 특별할인단체 모국방문



대표: 김 창 성 { 624-2227  
624-2228  
RES. 364-99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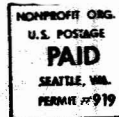
Lloyd Bldg. - Room 606  
603 Stewart St., Seattle, Wash. 98101

\*여행의 상담자\*

## 김창성여행사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 Seattle, Wash. 98104



NON-PROFIT ORGANIZATION



# 한인회보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The Washington State Korean News is Published monthly by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 O. Box 4093 Seattle, Wash. 98104  
Sung Kil Kim Publisher  
Editor

VOL. 3 NO. 3

SEATTLE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MAY 1976

## 소사

○ 한 병기 유엔 주재 한국대사는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시애틀을 공식 방문하여 미국 경제인과 언론인 그리고 한인교포와 강연과 좌담회를 갖았다. 그리고 한인회에 \$500.00을 기부금으로 전달한 바 있다.

○ 청주교인 한국말 미사를 5월 28일 오후 1시 30분에 차 신부님 집전으로 보게 되는바 교인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주소: Immaculate-Conception Church  
810 18th Ave. E., Seattle, Wa. 98122  
연락처: 641-5667 김 덕황

○ 지난 3월 27일에 있었던 Kingdome Stadium 개장식에 5만 7천여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7천여명의 출연자를 필두로 한국의 17개국이 참가하여 각국 고위 의장으로 각각 춤을 추었는데 아름다운 한복의 이와 더불어 소개된 화려한 부채춤은 조명에 더 한층 빛나고 아름다워 많은 관중으로 부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 날을 위해 수고해 주신 박 암 성생임을 비롯하여 백 인희씨, 그리고 멀리 타코마에서 출병해 주신 부인회 임원과 그외 여러분께 감사한다. 이에 더불어 Kingdome 개장 위원회에서도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한국팀에 감사하는 감사장을 한인회에 전달해 왔다.

○ 미국 유도연맹(U.S. Judo Federation)에서는 오는 5월 16일(日) 12:00 Kentridge High School에서 한국, 미국, 캐나다, 일본 4개국이 국제 유도 시합을 갖는바 이에 참가할 한국 대표 16명(한국내 각 고등학교 대표선수 12명, 지도교사 4명)이 5월 13일부터 17일까지 무료로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교포 가정을 찾고 있다고 유도연맹에서 한인회에 알려왔습니다.

모국을 위하여 귀하가 봉사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믿으니 타국에 나오는 이 선수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어 주실 분은 조 광철 체육부장(632-2070 오후 7시 이후)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Vancouver 선입한인회장에 김주환씨

밴쿠버 한인회와 와싱턴주 한인회는 1967년부터 이제 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친선야외회를 개최하여 양지역의 한인전선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왔는데, 지난 4월 10일에 있는 밴쿠버 한인회 총회에서 김주환교수가 신임회장으로 당선되었다.

금번도 시애틀-밴쿠버 친선 야외회장(場)은 순번대에 의해 시애틀 지역에서 개최케 됨이 크게 기대된다.

○ 워싱턴 대학교 증양문화(Center for Asian)연구소에서는 오는 5월 4일 오후 9시에 Guild극장(2115 N. 45th, Seattle, WA)에서 한국 문화영화 "옛날과 불꽃"과 일본 문화 영화 "에버렛산 전복"의 두가지 실사 필름을 상영한다고 하는데 입장료는 말인당 \$5.00이다 한다. 또, 증양 문화연구소에서는 증양 어린이 작품 전시회와 음악, 무용 발표회를 시애틀 시내에 있는 Astor Hotel(726 Pine St. 전화: 345-9370)에서 오후 2시 부터 4시 까지 갖는다고 하는데 한인의 참관을 바라고 있다.

## 「재미 한인 신실교회 발원 연구대회」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캘리포니아주 오렌드의 마일즈(Mills) 대학에서 미국 연합장로교회 총회 프로그램 에이전시 교회 발원 담당부서와 남부 캘리포니아 및 태평양 서노드(지역총회)의 대표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의 공동 주최로 재미 한인 신실교회 발원 연구대회가 개최된다. 이 대회에서는 재미 한인 신실교회 발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교역자들과 장로들에게 상호간의 친선과 공동된 과제 의견교환 즉 당회, 노회, 서노드(지역총회), 그리고 총회에의 진행과정과 기획의 일별, 교역자의 건강과 복귀문제, 선교목적 발전책 등을 서로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있다. 참가방법은 미국내 서부지역의 신실한인 장로교회의 목사나 1명의 장로이며 장로 1명 이상의 참석을 환영하고 있다. 시애틀에서는 형제교회의 최몽걸목사와 장로를 대신하며 이 양림집사, 타코마에서는 증양교회의 정 남식목사와 장로를 대신하며 안 병용씨가 참석한다.

**역대 한인회장 간담회**

1967년 미시호텔에서 첫 발족을 본 한인회는 그동안 많은 변모를 거쳐 오는 가운데 성장되어 오고 있다. 1970년대에 국제 정세와 경제공황으로 인한 급증한 현인의 이주 이민으로 우리의 수도 늘게 되었고 따라서 한 인회의 업무량도 많이 늘게 되었다. 이에 한인회에서는 이제까지 현인을 위하여 앞장서서 수고해 주신 회장님들을 한 자리에 모시고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앞으로 한인회 발전의 발전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여 이사회내에서의 현인의 지휘방향을 위한 제반 문제를 심도있게 토의코려 하고 있다.

**여권용 민원서류 안내**

신 동원 상항 총 영사는 총영사관의 업무를 신속하고도 원활히 할 목적으로 한인회에서 여권에 필요한 각종 민원서류 (일시 커다신고서, 교포여권신청서, 명의 변경신청서 외 각종)를 대위하여 교포들에게 민원업무의 편익을 도모 도록 3월 23일 서야를 방문시 서류일체를 전달한바 있다.

필요하신 분은 523-7057 장 현주 봉사부방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타코마 중앙교회에 옥민권 전도사 부임**

지난 4월 4일 타코마 한인 중앙교회 (담임 정남익 목사)에 옥민권 전도사가 부임하여 교회업무 전반에 걸쳐 담임 목사를 돕고 있다. 특히 옥 전도사는 타코마에서 처음으로 한인전담 주일 직업 소개관으로 방학을 받고 이 지역 교포들의 직업 알선에 전념하고 있는데 교포 여러분들의 많은 이용을 바라고 있다.

**사 월 에**

경순 캐슬리

요즘 며칠은 계속해서 날씨가 얼마나 화창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다. 나는 공처럼 흥분되고 어린이처럼 윙윙과 웃음을 아낌없이 이리뛰고 저리뛰고 했다. 그리고 오늘은 모처럼 가까운 해변에 나갔다. 아직 채 감지 못 하는 아기도 좋고 소리를 치며 야단이다. 모래를 파헤치면서 공들을 주어서 나에게 갖다 주느라고 열심이였다.

나는 아이들에게 시선을 그치지 않으면서도 멀리 보이는 습들과 항만을 둘러 보았다. 그리고 올림픽 선수들의 실경은 이른 아침 햇살에 너무나 눈부시게 찬란하다. 찬란한 물 위를 헤쳐가는 나룻배도 정경을 불려 일으킨다. 갑자기 마음이 가라 앉으며 나는 울컥해졌다. 권영립 식구들과 그리고 고국의 친구들이 생각난다. 또 내가 즐겨 따르던 선생님들과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원래 시를 좋아하여 읽기와 쓰기에 몰두하던 나는 기회 있는대로 자연을 찾아 풍류한 했다. 내가 대학교에 입학했던 해는 4.19 혁명이 일어났던 해인것 같다. 그리고 나의 대학 입학식은 4월 8일도 알고 있다. 지금은 3월에 개학이지만 그때는 그렇게 늦었던것 같다. 오후 두시에 입학식이 있었지만 나는 오전부터 벌써 학교에 가 있었다.

봄 별이 지금처럼 따뜻하고 기름진 흙 땅에 냉이와 기름 나물, 국수나물등 모두 싱싱히 나와 있었고 풀벌레는 이곳 저곳에 너무나 많았다. 나는 대학생 체면에 나물을 뜯을수는 없어 그리 나물들을 따라 밭을 옮기다가 외투를 벗어 잘고는 주머니에서 조그만 독일어 사립과 연필을 꺼내어 시를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희망의 사월' 이었다. 많은 필력을 기울여 만든것은 겨우 사행의 두릴시였다. 아직 서툰 독일어시는 이렇게 짧고 매우 평범한 것이었다.

" 푸른 창자에 큰 돛을 달고 선부 (Matrose)는 달린다 희망의 사월에 물결과 공지와 포부를 안고서, 먹집을 새로 비쳐오는 한 줄기 일광을 목회하고서.. 라는 내용이었던것 같다. 그리고 두째 줄은 꽤 심오하게 표현했던 것으로 지금은 기억이 잘 안난다. 좌우한 그때는 매우 감상적이던 시절이었고 또 꿈과 낭만과 포부가 가득하던 때였다. (Page 5 에 계속)

**원고 모집**

본 한인 회보에 실릴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교포사회에 바람직한 제안, 미국생활에서의 경험등 교포사회에 도움이 될 글과 시, 수필등을 보내 주시면 상의껏 발표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서 회보에 실릴 광고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

발송처 -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문의 전화 - 624-8930  
784-4492


**생활 안내란**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다. 이 때에는 정원 가꾸기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잔디:** 겨울 한 철 그대로 둔 잔디를 깎아야 하겠다. 처음 깎는 풀은 될수 있는 한 짧게 깎아서 그동안 막 자라난 풀과 죽은 풀을 제거 해 주는것이 좋다. 비료는 3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것이 좋고 매번 다른 성분 비료를 주는것이 잔디의 건강을 위해서 좋다. 비료를 일년에 한번 주려는 경우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이다. 잔디를 건강하고 보기 좋게 하려면 봄에 잔디의 근태 근태에 구멍을 내어 주어서 뿌리에 공기가 통하도록 해 주면 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잔디를 양분자 잔것처럼 예쁘고 고르게 하려면 요즘에 텃칭 (thatching)을 해 주어야 한다. Thatching은 고르지 못한 풀과 죽은 풀을 뽑아 내 주는 것인데 이 역시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늦은 봄과 초여름에 짙어 들면서 잔디를 조금씩 높게 깎는것이 좋다. 한 여름에는 비가 자주 오지 않기 때문에 풀은 높이 깎아야 수분이 축적되어서 햇빛으로 인해서 잔디가 상하는 것을 방지한다.

**나무:** 나무의 가치를 쳐주거나 나무의 모양을 예쁘게 다듬어 주려면 자른 나무를 쳐주어야 한다. 조금 늦은 강이 있지만 아직 과일 나무를 쳐주지 않았으면 더 늦기 전에 쳐주어야 하겠다. 장미 나무도 아직 쳐주지 않았으면 빨리 쳐주고 나무에 송충이나 다른 벌레가 생기지 못하도록 요즘에 약을 뿌려 줄것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밭:** 봄에 밭을 갈아서 씨를 뿌리는 고생을 하면 한 여름 정원에다 나는 채소를 즐길수 있다. 채소 값이 뛰 비싸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맛도 좋을뿐 아니라 이곳 서점에서 구입할수 없는 숙곳, 아욱, 깻잎, 그리고 부추등을 농사해서 즐길수 있다. 정원에 벌 좋은 곳을 일부만 갈아서 밭을 만들어서 짐승털 가꾸면 보기에 피 아름답다. 밭을 만들 만한 잔디의 여분이 없으면 꽃밭의 근태 근태에 호박이나 오이 몇 포기만 심어도 한 여름 동안 싱싱하지 않게 채소를 거둘수 있고 그 옆이 화초 갈아서 보기에 아름답다. 밭에 벌레를 없애기 위해서는 재를 뿌려 주는것이 좋고 으레지나 그랩후트 껍질을 갈게 썰어서 뿌려 주어도 좋다. 채소의 비료는 화학비료도 좋지만 그보다 자연 퇴비인 썩은 풀이 좋다. 땅이 좋지 않아서 농사에 실패할 (Page 4 에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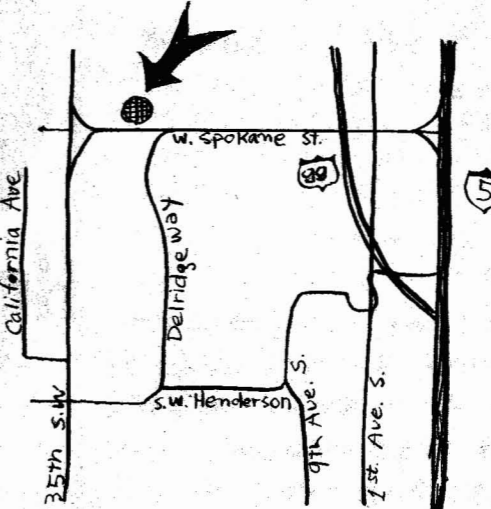
**J & P ORIENTAL AUTO BODY SHOP**  
동양자동차바디쇼

2336 S.W. SPOKANE ST, SEATTLE, WA 98106  
전화 : 935-9008

교포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번 저희들이 그동안 교포 여러분께서 항상 불편해 하시던 자동차 바디공장은 우리 교포의 힘으로 해결하여 드리려고 오랜 생각 끝에 문을 열게 되었음은 우선 지면(紙面)을 통하여 알려드리고져 하여 항상 저희를 아껴 주시고 찾아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순영  
배윤권 드림



**(Page 3 생활 안내란에서)**

불 경우에는 가을에 발을 한번 더 간후에 매번 잔디 깎을때 나오는 풀을 발 위에 버리고 한 일년간 썩히면 그 다음 해에는 땅이 좋아질 것이다.

\* 봉사부에서는 여러분의 생활에 도움이 될 기사나 정보를 「생활 안내란」에 실려고 있다. 의문점이 있거나 같이 알고 싶은 좋은 기사나 정보가 있으면 봉사부로 연락해 주기를 바란다 한다.

**이민국 문제 상담란**

연고자 이민 초령에 관한 문의가 수차례 왔으므로 이 달에는 이민 초령에 대한 범위와 수속 절차에 대해서 알아 보았다.

• 영주권 소지자가 초령할수 있는 사람

- 1) 남편이나 부인
- 2) 결혼하지 않은 미혼 자녀

• 시민권 소지자가 초령할수 있는 사람

- 1) 남편이나 부인
- 2) 부모
- 3) 자녀
- 4) 형제

• 필요한 서류

- 1) 시민권을 증명하는 서류나 영주권.
- 2) 초령자와 초령을 받을 사람과의 가족 관계를 증명하는 법적 서류.

• 절차

- 1) 이민국에서 탄원서를 받아다가 서서 공증을 받아 제출한다.
- 2) 탄원서가 이민국에서 인정 받은후 연락이 오면 10불을 지불한다.

\* 봉사부에서는 이민국 문제나 영사관 문제에 대한 의문점을 대신 알아 보아서 알려 드리고 있다. 교민 여러분의 애용을 바란다 한다.

**구인 안내**

주정부 직업 안내소 (Employment Opportunities Center)에서는 한국인의 직업 상담역을 맡아볼 사람을 급히 구하고 있다. 월 \$ 774.00 불의 보수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한인 사회를 잘 알고 영어에 능해야 한다는데 흥미있으신 한국분은 전화 725-8200 「빅키·야마모토」 씨에게 문의하시기 바란다.

**○ 한인 회비 납부를 요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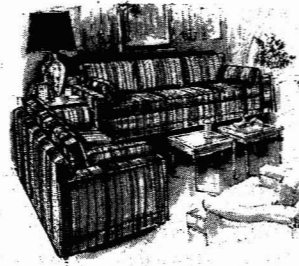
와싱턴주 한인회는 와싱턴주에 살고 있는 한인교포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유요하게 쓰일 한인회비 납부를 요망하고 있습니다. 한인회비가 쓰여지는 용도는 무한합니다. 한인회는 여러가지 새롭고 건설적인 아이디어를 많이 갖고 있으면서도 재임만으로 실행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보내주시는 회비는 우리가 단합된 힘으로 서로 도우며 생활향상을 가져올수 있는데 필요한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1976년도 한인회비를 미지급 내신분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부부 5불 이상, 학생 또는 독신자 3불. 금액과 주소, 성명을 명확히 기재하여 수표 또는 어니오티를 사용하시고 현금 우송은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를 내신 분에겐 영수증을 보내 드리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편리상 매달 발행되는 한인회보에 그 영장을 발표함으로써 영수증을 대신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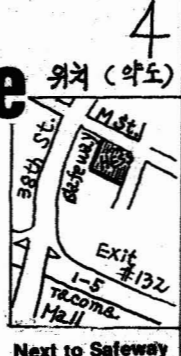
발송처: Seattle - Washington State  
Korean Association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천에 하는 고객 여러분. 저희 가구점에서는 친절과 신용 그리고 외상 거래로 고객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부의 왕림 하시어 저희들의 좋은 재주들을 선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종 신형 가구
- 카펫
- T. V. SYLVANIA
- 각종 전기제품 HOTPOINT
- 침구 및 매트리스

**Hess Furniture** 위치 (약도)  
3830 SOUTH M. ST.  
TACOMA, GR 4-8441



DAILY 9 A.M. TO 6 P.M. Closed SUNDAY

\* 신속, 안전 으로 무료 운반.

**KAWABE MEMORIAL HOUSE 소개**

하루 일과를 끝마치고 서둘러 약속시간을 맞추어 주소를 찾았다. 221-18th Ave. So, Seattle (전화 EA2-4550) 8층 현대 건물에 주위에는 정원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고 주차장에는 전용 버스 두 대가 보인다.

점문과 후문 출입이 좀 복잡하다. 현관 밖에 거주자 명단 옆에 있는 누름단추를 눌러 상대를 불러, 상대방이 자동단추를 방에서 눌러주어야 들어 갈수 있는 현대식 보안장치가 되어 있고 또 은행처럼 텔레비전 시설까지 갖춰져 있어 있음이 시선을 끌었다.

오후 6시경 식사시간이라 1층 식당에서 맛있는 생새가 발길을 이르게 따라 고개를 드러밀어 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룹져 앉아서 접대양의 대화를 즐기는 것이 평안스러 보였다.

건물관리 책임자 Ms. Tullis의 안내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수가 있었다.

본 건물은 일본인 고재 Mr. KAWABE가 그의 생전에 노인들이 평안히 쉴수 있는 거리를 이 땅에 만드는 것이 꿈으로 많은 고생을 하며 모은 돈으로 계획을 추진하다 뜻을 채 못 이루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 그후 그의 아들이 아버지 뜻을 따라 부족한 금액을 주정부에 요청하여 마침내 주 정부와 합작하여 이토록 훌륭한 8층 현대 건물을 짓고 좋은 조건에 노인들을 쉴수 있도록 마련 되었다고 한다.

162개의 방과 단채식당, 응접실, 도서실, 미장원, 당구장 까지 있다. 각 방과 화장실에는 비상 스위치가 있고 부엌시설과 방화시설, 전기히터등이 모두 고급 아파트 시설 이었다.

이 아파트에 입주 자격은 만 62세 이상의 연장자로서 저 소득자라야 해당이 된다고 한다. 아파트 비용은 대개 Studio Room이 한달에 \$88.00 One bedroom \$113.00이며 입주시 \$25.00의 보증금이 있다.

그리고 배 식사는 하루에 세끼씩 품종으로 식당에서 하는데 가끔 단채로 밖에 나가 식당에서 할때도 있다며, 식비는 월 \$55.50.

식당 식사와 각자 간식을 즐기길 희망하는 사람은 각자 방에 마련된 냉장고와 스토브를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고 한다.

현재 거주자중 일본인이 약 70명 중국인이 1명, 13명이 흑인 1명 백인등 기타 70명 정도 유숙하고 있다. 가끔 차례 프로그램도 만들고 여러가지 밖의 행사에 참가하며, 또 단체 Shopping에도 전용 Bus 두 대를 사용하며 즐긴다고 한다.

현재 방 3대가 비어 있다고 하며 필자가 한국인 거주자가 없음을 지적하고 방 셋은 한국인을 위하여 남겨 두도록 단단히 부탁해 두었다.

**(Page 2 "사원에")**

신입생인 우리들의 경우는 아직 대학의 참 모습을 익히기도 전에 4.19 혁명으로 휴업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다. 처음에 나는 그것을 별로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원래 정력과 리얼리즘에는 매우 무관했고 단순 탓이기도 했지만 어떠한 정치적 혁명이라면 뚜렷한 제목을 내걸고 어떤것에, 무엇 때문에 반기를 들며 자기의 뜻을 보이기 위해 질서정연히 행진하며 구호를 외치며 어느정도 지성적인 태도를 보여야지 그라 흥분해서 들떠 비며 싸우다니 말이 안된다고 불평스러운 태도였다.

그후 많은 학생들이 무력에 피를 흘리며 승기였다는 사실은 나에게도 분노를 이트켰다. 학생들은 모두 일어났다. 목적을 향해 달렸다. 이렇게 된 며칠후일까 나는 과외공부를 지도하고 있었는데 밖에서 비렁기 소리가 요란해서 한 아이가 나갔다 들어 오더니 배라를 몇 장 찢어 왔다. 그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에게 보내는 면세지였다. 이렇게 써 있었던것 같다. "나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평화대에서 하야하며 국민의 뜻에 따라 제 2의 공화국이 세워질 것이다." 나는 그때 생각해 목표가 달성된 것 같이 느껴졌다. 하지만 고희의 별다른 응심으로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그의 음성을 들을때, 그리고 아직도 그는 국민이 원한다면 하야하겠다는 국민의 뜻을 존경하고 사랑 한다는 의기로 민주주의의 빛을 보여준다는 생각을 할 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별히 나에게 두근 두근 유감스럽게 생각되는것은 그의 동생까지 부서버렸으며 몇 광객들이 희생되어 죽었다는 사실이다. 물론 자유당의 불의에 너무 격렬했고 훌륭한 나머지 격분해서 그랬을 것이다.

그리고 과도기의 미약하든 정부에 비해 5.16 혁명은 새로운 기대와 희망을 보여 주었다. 그래서 국민은 모두 젊고 새롭고 강건하리라 믿어진 박정희시를 선망의 대령으로 입신시켰다. 그렇게 바랄까하던 경제계획 5년과 젊음의 헌신과 말하는 해의 근면은 국민의 소망을 더욱 굳건히 해 주었던것 같았는데...

얼마전 나는 신문지상에서 문익환목사님이 옥중에 계시다는 기사를 읽었다. 내가 한국 신학대학에 학사편입되어서 공부하던 1965년이었다. 그렇지만 그 목사님의 대단히 강령을 주는 시적인 설교와 그의 특수한 양식의 시를 사모하며 그를 존경했다. 그를 뵈지 못하니 10년 (Page 6에 계속)

봄 소식

-오정숙-

창 밖으로 내다 보는 노릇 노릇한 개나리 봄오리가 나의 시선을 끈다. 뉘뉘생선 두 애기를 들보면서 고달프다는 이유로 그날 꼭 있어야 할 것 이외에는 생각하지 말기로 작립하고 꼭 하지 않아야 할 안될 일 이외에는 하지 않으 면서 살아 오는지 벌써 오래 되었다.

뒀 마당에 실파가 파랗게 돌아온 것도 몇 그레 아바 가 한 응름의 파를 뜯어다 줄 때 까지 알지 못했다. 다른 해 같으면 지금쯤 화병에 개나리가 꽃혀 있었을 터인데 요즘 나의 생활에는 마음의 여유가 조금도 없다. 큰 아이를 학교에 보낸후 한 손에 애기를 안고 한 손에 찻잔을 들고 멍청하게 앉아서 창밖을 내다 보다가 갑자기 봄이 온 것을 알게 되었다.

참뭉을 통해서 느껴지는 봄 별은 따뜻하고 다정하며 아 지랑이 건 볼 기운은 나의 나라해진 마음을 포근하게 감 사 주는 듯 하다. 봄 별은 아름다운데 얼룩진 우리창은 나를 부끄럽게 한다. 애기를 잠깐 놓고 문을 열고 나가 기지개를 맡것 켜고 봄 공기를 마셔 본다.

어제 밤에 애기 때문에 두어번 일어난 웃인지 아침부터 뒤 파근하게 느껴져서 으후만 우리원에 가는 두째 아이가 학교에 간 후에 애기 돌을 한꺼번에 재우고 나도 같이 잠깐 휴식을 해야겠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왔다. 침대로 가는 대신에 불룸에다 비누물과 맑은 물을 담고 걸레를 내다가 우리와 창가를 닦는다. 시간이 언제 갔는지 아가는 벌써 깨서 온다. 모처럼 부지런을 부려 보았지 만 아쉬운 대로 중지를 해야 한다. 우리의 안쪽만 닦았기 때문에 창문은 여전히 얼룩져 있지만 나는 흐릿한 마음으로 창밖을 내다 본다.

봄은 왔다. 앙상하던 개나리 가지에 잎이 솟고 꽃이 핀다. 개나리 가지를 한 응름 끈어다가 화반에 꽃꽂이 를 했다. 기분이 상쾌하다. 오늘 내게 찾아 온 봄 소식을 감사한다.

소 망

이 황근

딸기가 꽃을 피우고 언덕위에 잔디에도 화단위에 네일 크로바도 그리고 나의 바램도 한없이 초록빛처럼 진하며 가는구나.

푸르려 가는 바램속에 작은 나의 소망은 봄의 태양처럼 따스하게 이루어 졌어야지

소잔스럽게 보다는 소생하는 모든 봄의 소리처럼 우리들의 조그마한 소망도 살며시 고개들고 깨어 나야지

여기에서 아름다운 장산의 추억이 깃들고, 생각이 스고 이루어 질수 있는 계절 봄은 나의 소망의 계절인가 보다.

(Page 5 "사월애" 에서)

이 넓었으나 웬지 지금 가슴이 아프다. 푸른 큰 뿔이 있어 그 심량하고 자상하던 목사님이 옥중에서 수난 을 겪고 계시는지...

내가 미국에 시집 온지도 벌써 사뉘이 되었고 이제 는 미국의 시민이 되었다. 하지만 나의 조국인 대한민 국, 내가 놓아 자라서 정들었던 산천이며, 인립이며, 허물과 랫을 푸조건 몸담할수 밖에 없으며 무한한 사랑을 주사기에 그림이 없었던 내 아버지의 천정집이다 그리고 비록 가난하고 험했어도 오손도손 웃으며 지내던 그러한 형제들의 집이다.

사랑하는 내집 고국이며 평안하시라. 그리고 번영이 있이라 희망의 이 새 봄에.

5월 10일 한인회 주소록 마감.

1974년 구법회 한인회장이 발간한 한인 주소록이 그동안 변동된 것이 많고 회원의 증가로 재발간 할 때가 되어서 전년도 임원들이 미완성된 주소록을 가까운 시일내에 매듭 을 짓고자 하는 바 주소가 변동 되었거나 새로 이곳에 오신 분. 또는 주소록에 실릴 광고를 희망하시는 분은 5월10일 까지 하기주소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처: Korean Association P.O. Box 4093 Seattle, Wa. 98104

전보양식:

Form with fields for name (홍길동 Hong Kil Dong), address, ZIP CODE, and phone number.

76년도 회비 납부자 명단

- 17. 조요환 \$10.00 18. 김원택 \$10.00
19. Mrs. Clart Malmo 10.00 20. 최양자 40.00
21. 한안섭 10.00 22. 김혁량 10.00
23. Mr. John L.S. Slee 5.00 24. 심상현 5.00
25. 정평화 5.00 26. 전기수 5.00
27. 유창립 5.00 28. 최몽걸 5.00
29. 오윤복 10.00 30. 홍준희 10.00
31. 변종혜 5.00 32. 김학조 5.00
33. Kim, S.H. 5.00

집매매는... 안병용 부동산으로 씨아틀 838-2이오. 타코마 927-2277

Paul Shin (PAULL SHIN) 부동산 firstline properties inc. Member of North End Brokers Assn. \* 부동산을 매매 하실 때는 신용과 많은 이익을 보장하는 펄신에게 문의 바랍니다.

남서지역 부동산 주력 아파트 건물, 식당 상점 토지 DEL BIANCO REALTY Inc. JEAN KIM Associate (206) 932-1515

김현중부동산 (FRANK) HYUN CHOONG KIM \* 무료봉사: 값싼 이자를 알선 해드리고, \* 무료상담: 정확한 감정을 해드립니다 \* 취급종류: 주택, 아파트, 호텔, 토지, 점포, 기타사업 투자안내 PHONE: SEATTLE: RES. 774-7828, BUS. 774-7828, 525-7200 TACOMA: 437-0112

Henry Chang Travel Service NORTHWEST. 대한항공. JAPAN AIRLINE 1370 Stewart Street / Suite 201, Seattle, WA. 98109 Bus: (206) 623-2975 Res: (206) 623-7057 (24 hrs.)